



1F 엔트런스 · 홀

뉴타이잔관살롱

[북알프스의 자연과 사람]에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를 발신·교류하는 코너입니다.

산과 우리들의 미래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60년후의 산과 사람의 미래를 향한 메세지]를 카드에 적어서 당관에 보내주십시오.

어린이광장

크고 작은 등산용 백팩을 어깨에 메고 등산의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흔드너구리와 일본원숭이 박제를 만져보고 털의 부드러움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마치시 캐릭터 [오마뽕]과의 기념촬영도 부디 잊지마십시오.



오마치시 캐릭터
오마뽕

박물관 카페 · 숍

북알프스가 바라다보이는 아늑한 카페와 매점이 있습니다.
(여기만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박물관 부속 시설

부속원(동식물)

귀중한 야생 동·식물을 지키고 키우며 조사연구하면서 북알프스 산 아래 위에서 살고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사육,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야생에서 살 수 없게 된 동물을 보호하고 야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입장 무료)



산악 도서 자료관

산악에 관한 서적등을 수집, 보관하고 분실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조사와 교육보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산악문화의 계승과 보급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내

●오시는 길

·JR Shinano-omachi 역에서 택시로5분, 도보로25분
·Nagano고속도로 Azumino IC(인터체인지)에서 약40분
·Hokuriku고속도로 Itoigawa IC에서 약95분
·Joshin-etsu고속도로 Nagano IC에서 약80분



●개관시간

오전9시 ~ 오후5시
(오후4시30까지 입장)

●관람료

어 른 400엔
고등 학생 300엔
초·중학생 200엔
(단체30인 이상 50엔 할인)

※ 그 외 각 할인에 대해서는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휴관일

월요일, 국경일다음날,
연말연시
※7월, 8월은 무휴

●무료주차장

승용차30대, 대형버스5대

오마치산악박물관의 프로필

천후 얼마되지 않은 무렵, 희박한 이 땅의 산악 환경과 자연을 다시 일으켜 지역의 문화를 추구하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이 땅의 청년들이 일어섰습니다. 지역 주민의 뜨거운 지원을 얻어 「산의 도시·오마치」에 어울리는 일본 최초의 산악을 테마로 하는 박물관이 1951년 11월 1일에 탄생해 시민과 지역 주민에게 「산박」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당관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오마치시에서는 2002년에 「산악문화도시」로 선포했습니다. 현재, 당관은 그 중심적인 시설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98-0002 長野県大町市大町8056-1 TEL: 0261-22-0211 FAX: 0261-21-2133
E-mail: sanpaku@city.omachi.nagano.jp URL: http://www.omachi-sanpaku.com

시립오마치산악박물관 공식사이트는 산악박물관(토모노카이(친구회)서클의 지원으로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動物取扱業者 氏名又は名称: 大町市 牛越館 事業所の名称: 市立大町山岳博物館、事業所の所在地: 長野県大町市大町8056-1、動物取扱業の種別: 05、展示登録番号: 08000585号、登録年月日: 平成19年3月23日、有効期間の末日: 平成29年3月23日、動物取扱責任者: 佐藤真



한국어 버전 안내





七倉岳 (ななくら) 北岳 (きた) 蓮花岳 (れんげ) 赤沢岳 (あかざわ) 鳴沢岳 (なるさわ) 岩小屋沢岳 (いわこやざわ) 爺ヶ岳 (おやが) 布引山 (ふりぎ) 鹿島槍ヶ岳 (かしまづり) 五龍岳 (ごりゅう) 白岳 (しろ) 唐松岳 (からまつ) 鍾ヶ岳 (かねが) 杓子岳 (しやうし) 白馬岳 (しらかば)



전시실 안내



상설전시장안내

● 메인테마 [북알프스의 자연과 사람] ●

3F 전망라운지

여기에서는 북알프스 뒤에 있는 다테야마렌포의 전망을 파노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전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치시와 북알프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산과 통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2F 산의 과정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현재까지 멀고 먼 시간의 흐름을 화석과 암석을 만지며 실감해 보십시오. 이 지역의 지질 특성인 포사마그마, 북알프스의 과정은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F 산과 생명

최종빙기를 살아남은 생명의 자손들이 이 지역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오마치시 시가에서 고산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박물관에서는 일본카모시카(산양)와 라이초(뇌조)의 생활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F 산과 사람

사람이 북알프스의 산들과 선사시대 이후 어떻게 공존해 왔는지를 다양한 자료 및 대형화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령에 사는 사람들은 사냥, 물고기잡기나 산의 자원 등을 채집하면서 산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산촌의 생활을 전해주는 도구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근대등산의 시작에서 히말라야로 통하는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산장에서는 오사와산장의 변천과 산에서의 생활을 영상으로 봐주십시오.



특별전시실

1F 산과 미술

메이지시대 이후의 산악화가들이 그린 산악풍경화와 각종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피컬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획전 개최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